

주입식 아닌 맞춤형 공부법... '자기주도학습 교육' 인기

좋은책신사고 '신사고 멘토링' 동화세상에듀코 '상상코칭' 등 학습관리·멘토링·코칭 접목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선배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해지면서 교육업계에서도 학생 개개인에 맞는 공부법을 제시하거나, 공부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학습관리, 멘토링, 코칭 프로그램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사진은 스텝융합교육기관인 이쿠스팀 수업 모습. 이쿠스팀 11월 정규과정은 오는 19일 개강한다. /이쿠스팀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해지면서 교육업계에도 이에 발맞춘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학습관리나 멘토링 또는 코칭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다.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생에 맞는 공부법을 제시하거나, 공부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게 이들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11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학습법 전문 교육기업 공부혁명대의 파닉스콘이 대표적인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서울 송파구에 본원이 있는 파닉스콘은 명문대 멘토의 학습코치, 자기주도학습을 결집한 신개념 공부습관센터다. 월 1회 학습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성적과 학습습관, 취약점 등을 파악해 개인별 맞춤 공부법을 제시한다.

자기주도학습은 주 2회 4시간씩 집중

진행된다. 상주하는 명문대 대학생 멘토들이 일일 학습 관리를 하면서 공부 습관도 돕는다. 오는 1월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부법을 배울 수 있는 4주 과정의 윈터스쿨도 연다.

공부혁명대 송재열 대장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나가는 자기주도학습을 위해서는 적절한 학습 코칭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교육업계에서도 고

과목 수업 등과 같은 티칭에 코칭을 접목한 수업이나 멘토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어, 수학, 영어 등 단일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을 융합해 가르치는 스텝융합교육기관인 이쿠스팀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다. 수

업 방식은 로봇공학, 코딩융합, 메이커교육 등으로 학생 스스로 과학, 수학 등 다양한 과목을 융합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결과물을 발표하는 방식이다.

이쿠스팀 관계자는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학생 스스로 학습 방향성과 본질을 깨우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창의력이나 컴퓨터 사고력 등 21세기 인재에게 요구되는 소양을 갖추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쿠스팀 11월 정규과정은 오는 19일 개강한다.

동화세상에듀코는 자기주도학습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는 '상상코칭 애플리케이션'을 올해 출시했다. 일대일 방문코칭 프로그램인 '상상코칭'을 앱으로 연계한 것으로, 학습습관 관리와 KCPA 진단검사, 5분 포인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진단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진로나 학습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습관 관리를 통해 과목별 학습 시간을 기록해 실시간 점검도 가능하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대상 지도교사 전문 코칭 시스템을 도입한 푸르넷공부방은 학생들의 공부·생활 습관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가

정과 비슷한 공간에서 소규모로 진행해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특성에 맞춘 학습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성출판사의 초등 전과목 학습지인 푸르넷, 온라인 학습 사이트 푸르넷 아이스쿨과 연계한 학습 시스템을 갖추고 학교 진도에 맞춰 전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또 수학, 논술, 한자, 역사 등 과목도 특강으로 학습할 수 있다.

좋은책신사고는 중·고등학생을 타겟으로 '신사고 멘토링' 서비스를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이다. 자기주도학습으로 입시에 성공한 대학생 5명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학습 계획이나 과목별 전략 등 노하우를 담은 학습 칼럼과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누적 상담건수는 약 9000건, 멘토 칼럼은 1000건에 달한다. 대학 진학에 성공한 선배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좋은책신사고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기르도록 초등 우공비 공부달력, 중고등 스터디 플래너를 자체 제작해 증명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간절한 마음으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올 앞둔 11월 서울 조계사 진신사리탑 앞에서 한 시민이 자녀의 수능대박을 기원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 '한전공대 부지 선정' 발표 가시화

절차·방법 등 로드맵 공개 부지선정전문가족 구성

'한전 결정에 따른다'는 광주·전남 지자체의 합의로 준비 작업에 착수한 한국전력이 조만간 한전공대 부지선정 로드맵을 발표할 전망이다.

11일 한전공대설립단에 따르면 한전은 용역사인 'A.T.Kearney'가 부지선정 절차와 방법을 확정해 제안하면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전 측은 로드맵 발표의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용역 최종보고회와 함께 부지선정 절차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로드맵

발표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전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용역 과정에서 부지선정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남권 신공항, 제주 신공항 등 추진 과정에서 용역절차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것을 의식한 것이다.

용역사는 자체 인력풀로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할 방안과 함께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공동 성명을 내고 "한전공대 부지는 일체의 정치적·지역적 고려 없

이 최선의 부지를 한전이 선정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용역 내 전문가위원회의 입지선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목포 지역에서 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유치전에 뛰어드는 등 지역 간 유치경쟁은 여전하다.

한전은 지역 간 유치경쟁을 고려해 부지선정을 용역 내 전문가위원회에 일임하고, 구체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전공대설립단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대외적인 반대 여론과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늦어도 내년 초까지 부지선정 절차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없다"며 "부지선정에 용역사의 스케줄이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복혜정 기자 bcy2020@

삼육대, '하워드 리父子 특별전시회'

삼육대가 제3대 교장인 하워드 리의 특별전시회 '세 가지 사랑의 흔적: 교회사랑, 삼육사랑, 한국사랑'을 23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개교 112년을 맞은 삼육대의 기틀을 다진 미국 선교사 하워드 리(Howard M. Lee, 한국명 이희만), 도널드 리(Donald Lee, 한국명 이단열) 부자(父子)의 발자취를 더듬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워드 리는 미국 사우스 랭캐스터 아카데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1910년 4월 조선 땅을 밟았다. 삼육대의 전신 의명학교 총무를 역임하다 이듬해 초 제3대 교장에 취임했다.

그는 20년 이상 의명학교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남녀공학, 기숙사제도, 실업교육을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해 정착시켰고, 다양한 학교운영 체계를 마련하며 교육사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고 삼육대 관계자는 밝혔다.

도널드 리는 아버지 하워드 리의 선교

활동으로 의명학교가 있던 평안남도 순안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1940년 오리건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전란 직후인 1954년 한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삼육신학원(삼육대 전신) 원장에 취임했다.

도널드 리는 교육학을 전공한 교육 행정자답게 학칙과 학교 행정, 교육 시설 등 전란 이후 열악한 교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대학 수준에 걸맞은 환경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다. 도널드 리는 이번 공로로 1959년 정부 공보실 주관 아래 거행된 기독교 한국선교 75주년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는 도널드 리 선교사의 유족인 샌디 리(Sandy Lee Gibb) 씨 등이 올해 초 삼육대 박물관에 유품을 기증하면서 마련됐다. 전시되는 유품은 총 130여 점으로 사진, 고서, 교육자료, 민속품, 손으로 그린 의명학교 배치도 등 당대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삼육대 측은 설명했다. /이범종 기자

성균관대 신임 총장에 신동렬 교수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이사장 서정돈)는 지난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21대 성균관대 차기 총장에 신동렬(申東烈, 62세·사진)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새 총장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다.

신 총장 선임자는 1956년생으로 서울 이고향이며 △용산고등학교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 △조지아공대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성균관대 제어계측공학과 교수로 임용돼 정보통신대학장(5연임), 성균융합원장을 역임하며 교육과 행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한용수 기자



수능 다음날 이대서 '종로학원 대입설명회'

수능 다음날인 16일 오후 3시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종로학원 2019 대입설명회'가 열린다.

종로학원은 서울 설명회에 이어 11월 25일까지 부천, 인천, 일산, 분당, 평촌, 세종, 대구, 대전, 부산, 광주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주요 대학의 논술시험은 수능 이틀만에 열린다. 17일~18일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서강대가 논술시험을 치른다. 그 다음주에는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에서 논술시험을 실시한다.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는 면접시험을 치른다.

이번 설명회에서 종로학원은 ▲가채점 토대 정시 지원가능 대학 가능 배치참고표 제공(참가자 전원) ▲금년도 수능 정시 유불리 과목 집중분석 ▲영어 2, 3등급대 이하 서연고 및 주요대 합격 전략 ▲탐구 2과목 유불리 점수에 따른 최상의 대학 지원전략 ▲금년도 정시 의치한 합격전



의 핵심 변수 분석 ▲전년도 대학별 합격점수 모두 공개 ▲금년도 논술, 면접 응시여부 가이드 라인 제시 ▲정시 원서접수 직전까지 체크해두어야 할 입시정보 모두 제공 ▲2019학년도 대학 학과별 변화에 따른 유불리 집중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 연사로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 김명찬 소장, 종로학원오종운 평가이사, 종로학원개발원 장문성 원장이 참여한다.

참가신청은 종로학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사전 예약 후 설명회 실제 참석자에 한해 당일 설명회 자료집, 배치참고표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도 제공된다. /이범종 기자 joker@